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소비자는



보도

2023.11.02.(목) 15:00

배포

2023.11.02.(목)

담당
부서상품심사판매분석국
보장상품팀

책임자

국 장 김범수 (02-3145-8220)

담당자

부국장 최용욱 (02-3145-8242)

보험감독국
특수보험2팀

책임자

국 장 문형진 (02-3145-7460)

담당자

팀 장 황기현 (02-3145-7466)

손해보험검사국
검사기획팀

책임자

국 장 원희정 (02-3145-7680)

담당자

팀 장 손인수 (02-3145-7510)

최근 ‘독감보험’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경쟁 관련 손보사 간담회 개최

1

간담회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'23.11.1.(수) 주요 손보사 담당임원과 간담회를 실시한데 이어 '23.11.2.(목) 14개 손보사 임직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
- 최근 손보사의 ‘독감보험’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음

손보사 간담회 개요

☑ 일 시 : '23. 11. 2.(목) 15:00~16:00

☑ 장 소 : 보험개발원 9층 대회의실

☑ 참석자 : (금 감 원) 상품심사판매분석국(국장 주제), 보험감독국, 손해보험검사국
(보 험 사) 삼성화재, 현대해상, DB손보, KB손보, 메리츠화재,
한화손보, 롯데손보, 흥국화재, MG손보, 농협손보,
하나손보, AXA손보, AIG손보, ACE손보
(유관기관) 손해보험협회, 보험개발원

2

간담회 개최 배경

- 그간 금감원은 운전자보험(변호사선임비용), 간호·간병보험(입원일당) 등에 대해 적정 보장금액을 설정하도록 적극 지도해 왔으나,
 - 최근 일부 손보사가 ‘독감보험’의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하고, ‘응급실탁약’의 보장금액도 인상하는 등 손보업계는 여전히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음

【 독감보험의 개요 】

- **(개요)** '20.8월 A사가 최초 개발(금감원 신고수리)
- **(보장내용)** 독감 진단확정 + 항바이러스제 처방시, 최대 20만원, 연간 1회 지급
※ 평균치료비 및 모럴리스크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최대가입금액(20만원) 및 연간 횟수 제한(1회) 설정
- **(보장금액증액현황)** A사의 경우 1회 50만원 연간 최대 6회 지급 운영(연간 300만원 한도)
'23.10.31. 현재 5개 손보사가 50만원 이상 보장금액 운영중

- 결국, 이러한 보험사의 과열 경쟁이 도덕적 위험 및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옴

【 최근 손보사 과열 경쟁 사례 】

- ① **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** 보장한도 증액(1천만원 → 1억원)
→ 실제 발생가능성이 없는 수준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하여 보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적정 수준의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도록 감독행정 실시('23.3월)
- ② **간호·간병보험의 입원일당** 보장금액 증액(2만원 → 26만원)
→ 과도한 보험차익에 따른 도덕적 위험 및 손해를 악화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는 보장한도를 설정하도록 업계 자율시정 유도('23.8월)
- ③ **독감보험의 보장금액** 증액(20만원 → 100만원)
→ B사의 한도 확대('23.10.10.) 이후 판매 대폭 증가*
* B사는 '21.4월 출시 이후 '23.10.9.까지 3.1만건 판매, 한도확대 이후인 '23.10.10.~30. 기간동안 10.8만건 판매
- ④ **응급실 내원특약의 보장금액** 증액(2만원 → 25만원)
→ '15년부터 암 등 중대질병에 대해서만 통원비 보장을 하도록 지도하였는데도, '응급'이 아닌 '비응급' 통원을 보장하고 최근 보장금액도 대폭 인상

3

소비자보호 측면의 주요 문제점

① 과도한 보장금액, 부적절한 급부설계 등으로 모럴해저드 유발

- ☐ 관련 법규상 보험상품은 '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가입금액'을 설정해야 하고, 통원비의 경우 중대질병만 보장하도록 지도('15.5월)*했는데도

* 감기 등 경증질환 통원비 보장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 유발소지 큼

- 상당수 손보사들이 실제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하거나, '응급'이 아닌 '비용급'까지 보장하는 등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

➡ 이용자의 초과이익 발생으로 모럴해저드 및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되어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가 우려됨

② 손보사간 무분별한 판매 경쟁으로 불완전판매 우려

- ☐ 손보사들은 적정 보장금액에 대한 적절한 산출근거 없이 마케팅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 경쟁을 지속하는 상황

➡ 보험상품 판매시 과도한 보장금액만 강조하고, 특히 절판 마케팅을 부추기며 제대로 상품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우려됨

4

유의 사항

① 상품개발 및 보장금액 증액시 적절한 내부통제 준수 필요

- ☐ 현재 일부 손보사는 상품개발 및 보장금액 증액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

- 이로 인해 무분별하게 보장금액 확대 경쟁이 일어나는 상황임

□ 따라서 각 회사는 **상품개발 및 보장한도 증액**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할 필요

- 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「**상품심사기준**」을 준수하여 **보장 위험에 부합하는 보장금액**을 설정
- ② 보장금액 증액시에는 기 신고상품의 신고수리시 허용(보장하는 위험에 부합)한 **보장한도**를 고려
- ③ **보장금액 증액**시 적정성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및 강화

②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열 경쟁 자제 요청

- 이와 같은 손보사의 상품개발 및 영업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손보사의 이익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, 장기적으로는 사후적 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
- 손보사 스스로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을 자제하길 당부함

5

향후 계획

- 향후 금감원은 손보업계의 **과도한 보장한도증액**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보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임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